

서호도, 슈게쓰 도칸 작품(1496년)

중국 항저우에 있는 서호는 당나라 시대(618~907)부터 중국의 전설이나 그림, 문학 등에 등장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당으로 건너간 사절단이나 승려, 상인들도 여행 중 종종 항저우를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일본 문인들 사이에서도 서호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서호는 중국에서 이상적인 자연미의 상징이 되었고, 일본에서도 시인이나 화가, 귀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그림은 1496년에 그려진 족자로,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호 그림입니다. 작자는 셋슈 도요(1420~1502)에게 배운 슈게쓰 도칸(생몰년 미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이나 사찰, 수목을 그린 필법에서 셋슈의 특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셋슈의 작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낙관은 작가가 다른 인물임을 시사했습니다.

낙관에는 ‘항저우 서호도 홍치 9년(1496) 3월 3일, 베이징 회동관에서 그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496년 당시 셋슈는 중국에 있지 않았지만, 슈게쓰는 중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슈게쓰는 서호를 그린 후, 베이징 회동관에 머무는 동안 중국 그림을 참고하여 작품을 완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낙관의 기록으로부터 이 작품은 슈게쓰의 작품인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다리 아래에 ‘육교’, 중앙 뒤쪽 북고봉과 남고봉 사이에 위치한 작은 건물 위에는 ‘영은사’ 등 다양한 장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슈게쓰는 모든 장소가 한 장에 담기도록 실제보다 축소해 그렸지만, 건물이나 성벽 등은 지도처럼 정확하고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묘사는 슈게쓰가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렸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작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후대의 일본 화가들, 특히 가노파 화가들은 서호를 그릴 때 슈게쓰의 이 작품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가노 마사노부(1434~1530)가 창시한 가노파는 무사와 귀족, 아시카가 쇼군가, 도쿠가와 쇼군가 등의 후원을 받으며, 300년 이상 일본 화단에 군림했습니다. 가노파 화가들은 중국의 산수화나 불교와 관련된 인물을 주제로 한 수목화를 특히 잘 그렸습니다. 1600년대, 직접 서호를 방문할 수 없었던 가노파 화가들은 슈게쓰가 그린 서호를 참고하여 작품 제작에 매진했습니다. 구도와 필법에 창의성을 더해 어떤 부분은 강조하고, 어떤 부분은 절제하는 등 각자 독창적인 표현으로 서호를 그렸습니다.

이시카와현립미술관은 슈게쓰의 작품 외에도 가노 모토노부(1476~1559), 가노 고이(?~1636), 가노 단유(1602~1674)의 작품과 서호를 주제로 한 작품 총 4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후자 3인의 작품에서는 산은 더 높게, 건물은 눈에 띄지 않으며, 호수는 구름으로 덮여 있어 한층 더 은은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서호 묘사에서 슈게쓰는 전체 풍경을 압축하면서도 충실하게 재현한 반면, 가노파 화가들의 작품은 예술성을 중시하며 중국과 일본의 화풍을 융합한 스타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는 전시하지 않지만, 미술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슈게쓰의 ‘서호도’는 1950년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